“김영란법, 불교계도 확실히 알아두자”

법령 시행 앞두고 불기협 등 교계 설명회 잇달아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불교계 단체들이 청렴한 교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잇달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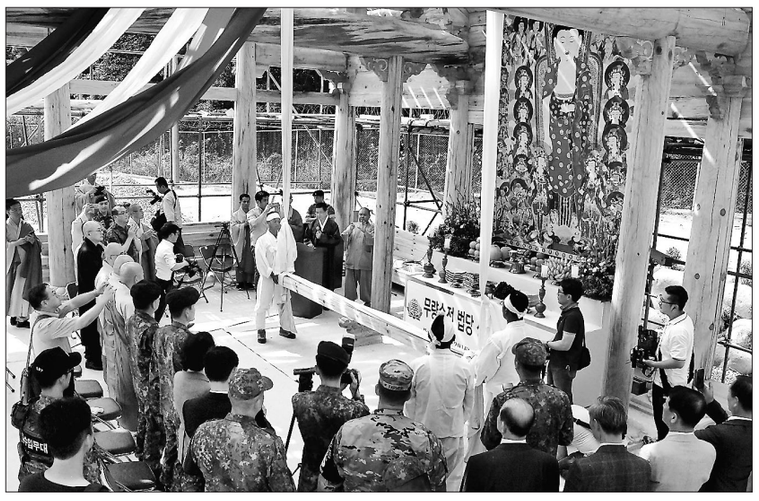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9월 26일 오후 4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김영란법 관련 좌담회를 연다. 좌담회는 전승진 변호사(법무법인 나라)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언론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기협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취재환경을 이해하고,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한 좌담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기협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8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취재지원 명목으로 이뤄져온 일부 관행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며 “어떤 청탁도, 사적 이익을 위한 요구도 단호히 배격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9월 5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서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직원예불 후 진행된 설명회서 이진영 불교방송 법무감사팀장은 “김영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부정부패 규제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회장 이재우)도 같은 날 선학원 회의실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를 초청해 관련 특강을 열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南北 경계서 평화를 외치다 한국전쟁의 뼈아픈 상처이자 민족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늘 긴장감 가득한 이곳에 남북평화를 발원할 전법도량의 대들보가 올라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6일 JSA안보견학관 앞 법당부지서 ‘무량수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연내 법당을 완공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군위령비를 세워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5만 조선 하청노동자, 우리가 지킨다”

조선업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 9월 6일 출범

조선업 대량해고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종교계 및 시민사회계 단체들로 구성된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9월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00여 개 단체 협의체다. 이날 시민사회대책위는 ‘소리 없는 약탈, 소리 없는 살인을 멈추라!’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소 대량해고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대책위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당과 수당을 깎고, 상여금을 빼앗아 월급을 반토막 내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선소 뱃고동 소리가 소리 없는 죽음이 아닌, 노동자를 살리는 나팔이 되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해 사회노동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만공의 ‘喝’, 조선 독립 위한 ‘언어폭탄’

경허 · 만공선양회, 8일 만공선사 학술대회

“폭탄 투척 · 저격 · 투옥 · 고문과 같은 형이하학적, 육체적 항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서훈 인정 기준은 이제 형이상학적, 정신적 차원의 항일 독립운동을 발굴 · 선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만공 스님의 항일은 선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이고 수준 높은 독립운동으로 국가 차원의 서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윤 前 중앙일보 대기자는 9월 8일 경허 · 만공선양회가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일제하의 만공대선사 항일 사자후’를 주제로 개최한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에서 만공 스님의 선사상과 항일 정신에 대해 조명했다.

이 前 대기자는 만공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는 화두인 ‘무(無)’자와 ‘만법귀일(萬法歸一)’을 주목하며, 스님의 견성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이 前 대기자는 “만공 스님의 선 사상은 돈오의 남종선의 선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 때문에 남종선의 선지가 곧 만공의 선사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前 대기자는 1937년 총독부 회의실에서 미나미 총독 주제로 열었던 조선불교 진흥회의에서 만공 스님이 미나미 총독에게 “본연이 청청하거늘…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흉계는 마땅히 거둬야 한다”고 일갈한 사자후를 주목했다.

이 前 대기자는 선가에서 행해지는 ‘할(喝)’을 세속적 의미로는 일종의 ‘언어폭탄’으로 해석됨을 전제하고 “만공의 미나미 총독을 향한 ‘할’은 소극적으로 꾸짖음과 비판이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흉악한 식민통치를 폭살하고 조선인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결사 항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만공은 이미 생사 분별을 넘어선 해탈자였기에 총독의 정신을 폭살하는 의거 후의 사형이나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생사일여의 진여를 체득한 만공에게 육체적인 형벌은 허공을 지나는 그림자였다”며 “만공의 항일독립정신은 실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선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도(至道)의 현현이었다. 어떤 독립운동보다 높은 차원의 독립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만공 스님의 모습. 그가 미니미 총독에게 행한 할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조선독립을 위한 항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나미 일제 총독의 회유 맞선
만공의 일갈, 고차원 독립운동
禪 바탕으로 실존 독자성 강조
“정신적 항일도 서훈 인정해야”

이 前 대기자는 만공 스님이 보여준 정신적인 차원의 항일독립운동을 재평가하고 독립운동가 서훈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공 스님의 정신적 항일 운동이 역사 속에 소리 없이 묻힌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높은 차원의 독립운동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거듭 국가적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일할(一喝)’로 일제의 정신을 폭살하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외친 그의 항일운동 서훈 인정은 충분하다. 또한 만공 스님의 할은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떠받치는 선철학과 동양철학의 이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시명 순국선열 유족회장, 이덕진 문성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교수, 이동언 홍암나철선생선양회 연구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 스님, 운상선원 주지 혜월 스님, 이정은 3 · 1운동 기념사업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論講정신 살린 ‘학인 토론 배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9월 28일 ‘1회 학인토론대회’ 개최

불교의 논강 정신을 강화하고 불교 토론문화 진흥을 위한 학인 토론 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회 조계종 학인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대회는 승가의 전통적인 논강을 강화하고 학인들의 사고력과 발표력, 토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종단 차원의 학인 토론대회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대회는 오전 1차 토론(예선)과 2차 토론(결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 주제는 종단 필수교육과정 중 하나인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내용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불교를 펼치는데 있어, ‘선불교’와 ‘초기불교’ 중 어느 가르침이 보다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가’이다.

결선은 사회적인 의제로 ‘2018년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존엄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 진행 방식은 예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선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가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현재 12개 승가대학을 비롯해 기본선원, 동국대(서울 · 경주), 중앙승가대에서 2인 1조로 24개 팀이 출전한다.

9월 6일 조 추첨 · OT 등 진행
24개 팀 참가해 토너먼트로
“불교 토론문화 성숙에 기여”

시상은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 10팀과 예선에만 참여한 팀에게는 원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대회 설명회 및 조 편성’을 진행했다. 불국사와 운문사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조 배정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조(동국대 경주 2 · 청암사) △2조(중앙승가대 1 · 해인사 1) △3조(동학사 · 통도사) △4조(봉녕사 1 · 범어사 1) △5조(기본선원 2 · 미정) △6조(봉녕사 2 · 동화사 1) △7조(해인사 2 · 동국대 서울 1) △8조(중앙승가대 2 · 기본선원 1) △9조(동화사 2 · 쌍계사) △10조(범어사 2 · 동국대 경주 1) △11조(송광사 · 동국대 서울 2) 등이 조 배정을 받았다.

교육원 측은 대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팀별로 이름을 받아 소속 승가대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경연보다는 토론 문화를 성숙하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를 통해 학인들의 사고력과 발표력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전부지 개발, 문화재 영향평가부터”

한전부지환수위(위원장 지현)가 9월 8일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문화재 영향평가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전부지환수위는 9월 8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105층 대규모 건설공사와 영동대로 개발로 인해 천년고찰 봉은사의 수행환경과 각종 국가지정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문화재 영향평가를 비롯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한전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그룹 사옥 건축사업을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9월 2일 서울시청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 신사옥과 전시장, 호텔 등 총 5개 건물을 짓는 개발계획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삼보종 창종 25주년 기념대법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여래의 지혜와 광명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불교미래를 위하여!
종조이신 서산대사의 정신을 받들어 선학.교학. 율학 삼학을 수행하고 불국토 건설하는날까지
불법포교 정신의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고져 삼보종 25주년 기념법회를 열게되어 제방에 고합니다.

초대종정 멸공 **대종사** 법 주 정각 원로원장 금산 부종정 회천

원 로 위 원 정공. 법천. 청암. 혜공. 득봉. 오연
봉행위원장 법장 부 위 원 장 법등. 법경
봉행위원 종회의원 법융. 법성. 법공. 해봉. 홍인. 법등. 법륜. 덕암. 수산. 해원. 불광. 용현. 대산. 지원. 법인. 평산. 법전. 도오. 지일
집행위원장 평산 부 위 원 장 도오. 도찰 준 비 단 장 지일 집 행 위 원 각 부장, 국장 (전,간부일동)

사부대중 종도일동

■ 내 용 : 1부, 11시 기념법회 / 2부, 12시 경로위로잔치
■ 일 시 : 2016년 9월 29일 (목) 11:00 ~ 14:00 까지
■ 장 소 : 김해 내동 휴앤락몰 라페스타부페 6층 (☎ 055-320-9880)
■ 알 림 : 총무원에 명단 미리예약 되어야 입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참 조 : 화환일체 사양하며 쌀보시로 대신합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 4 ■ 예약처 : 055)338-0089

■ 주 최 : 대한불교삼보종 중흥회의 ■ 주 관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협 찬 : WBB 월드불교 연합방송

승려분한신고 및 사찰등록 변경신청 공고

(사)삼보종 창종 25주년을 맞이하여 통합창종 1991년 등록이후 현재까지 본 종단산하에 등록된 930개 사암의 재정비를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등록 변경신청으로 종무행정에 협조와 사암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재적 및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하면 종권회생 되오니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년 9월 19일 ~ 12월 30일까지
■ 구비서류 : 분한신고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포함) 1매
여권사진 1매
■ 접 수 처 : 총무원 055-338-0089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 4)
■ 종권해지조치 : 분한신고기간 이후부터 국세청과 국가기관에 등록사항 취소 및 말소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